



생명 중추의 젊음을 되돌려주는 묘약

로알제리

- 지난호에 이어서 -

8. 자율신경 실조병, 갱년기 장애에 탁월한 효과

자율신경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내장기관을 부드럽게 움직여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여 주는 신경으로 뇌의 중추에서 나와 전신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인 간뇌, 시상하부가 쇠약해지거나 이상을 일으키거나 하면 갑자기 밸런스를 잃고 여러 가지 병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수소(不定愁訴)라고 하는 것으로 원인이 되는 병이 없음에도 두통이 일어나고 현기증, 얼굴이 붉어짐, 손발이 차가워짐, 근육마비, 오심, 요통, 피로감, 스트레스, 식욕부진 등을 호소합니다.

이 일련의 증후군을 자율신경 실조병(失調病)이라고 합니다. 로알제리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그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부정수소에 대해서는 대단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渡會浩의사의 임상예 보고에서〉

- ① 기분이 상쾌해졌다.
- ② 피로감이 없어지고 체력이 증강되었다.
- ③ 오심, 요통이 경쾌해졌다.
- ④ 식욕이 증진되었다.
- ⑤ 변비가 없어졌다.
- ⑥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다.
- ⑦ 성욕이 향진되었다.

- ⑧ 혈색이 좋아졌다.
- ⑨ 손발의 차가움이 없어졌다.
- ⑩ 얼굴의 반점이 없어졌다.

로알제리는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여성의 갱년기 장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9. 고혈압과 저혈압 모두 함께 정상수치로

로알제리의 애용자로부터 높았던 혈압이 정상수치로 내려왔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한편에서는 저혈압이 서서히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체험담도 자주 듣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이야기이지만 로알제리에는 생리작용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던지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중에서도 본능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현저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본능성 고혈압은 주로 자율신경의 긴장에 의해 일어납니다. 이 긴장한 자율신경을 완화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로알제리입니다. 높아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알제리는 강압제와 같이 정상치를 넘겨 강제로 혈압을 내리는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혈압인 경우에도 자율신경 기능이 불안정한 때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도 로알제리를 섭취하는 것으로 불안한 자율신경 기능이 안정 상태로 변하여 혈압이 정상치로 돌아오고 일어설 때의 현



기증, 탈력감의 증상이 없어집니다. 저혈압에 있어서의 효과는 프랑스의 도스토란이나 쇼반교수들의 연구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한편 고혈압과 깊은 관계가 있는 동맥경화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얄제리는 혈액중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임상 실험에서 확인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함멜 등은 로얄제리에 의해 C/P계수(혈액 중의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의 비율)이 저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일본의 島本多喜雄교수(동경의과치과대학)도 임상에서 로얄제리를 수치의 저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0. 당뇨병의 혈당치를 컨트롤 한다.

당뇨병 환자가 로얄제리를 이용하고 난 후에 혈당치를 내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왜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지 다음 세가지 점이 생각됩니다.

- ① 로얄제리가 뇌간,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뇌하수체를 자극하고 그 하수체 호르몬이 부신을 통과하여 혈액 중의 당분량을 정상으로 컨트롤 합니다.
- ② 뇨 중의 당분은 자율신경(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 감소합니다. 이것도 로얄제리의 뇌간을 쬐게하는 작용에 의해 자율신경이 조정되어집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도 충분히 생각되어 집니다.
- ③ 인슐린을 만드는 것은 비타민 B6가 필요불가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얄제리에 함유된 비타민 B6가 단백질 대사를 부드럽게 하고 충분한 인슐린 성분을 촉진시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느 당뇨병 환자가 병원에 뛰어왔을 때는 혈당치가 무려 1032(정상치는 70~100mg/dl)이었고, 혼수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입원하고서부터 로얄제리의 양을 늘려 먹기 시작하여 1주일 후에는 혈당치가 208로 격감하고 3주일 후에는 거의 정상치에 가까운 113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로얄제리의 혈당조절 능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혈당치가 감소한 임상 예는 스위스 및 구소련의 학

자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어 있습니다.

11. 간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로얄제리

간장병 환자가 로얄제리를 음용하고 병상을 급속하게 회복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간장병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습니다. 어느쪽에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그 중에는 C형 간염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낸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九嶋박사의 동물 실험 내용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쥐에게 렌트겐선을 조사(照射)하면 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합니다만, 렌트겐선을 조사하는 전후에 로얄제리를 주사(注射)하면 렌트겐에 의한 간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도 활성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에서 로얄제리에는

- ① 건강한 간세포를 장애로부터 지키는 영향이 있다.
- ② 장애를 받은 간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영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간 강화 기능을 가져오는 유효성분은 로얄제리에 함유된 비타민 B2나 니코틴산(나이아신)이 아닌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로얄제리에는 판토텐산이나 콜린, 메티오닌 등과 같은 간장 강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강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인 渡倉박사의 치료 경험에 있어서도 간염을 일으킨 남성이 로얄제리의 투여로 회복한 예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취재한 사례에서도 뚜렷한 효과를 본 예가 있었습니다. K씨(여성 47세)는 C형 간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GOT, GPT 수치가 250으로 높았습니다만, 로얄제리를 음용하고 1년 후에는 100대로 저하하고 3년 후에는 70의 낮은 수치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